



꽃이 진다고 새들이 슬퍼마라

〈사람〉

바람에 흩날릴 뿐 꽃의 탓 아니로다

〈을사사화〉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꽃과 운명

차벽 지음

그는 단종의 양위(讓立) 소식을 듣고 방랑길에 올랐다. 그리고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 노랑진에 묻었다. 잠시 경주 금오산에 정착하기도 했으나 일평생 유랑하다 무량사에서 병사했다. 어린 시절 신통으로 소문난 그를 세종이 직접 시험을 하고 비단 50필을 하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누구인가? ‘금오신화’와 ‘산거백영’의 저자이기도 하다. 바로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다. 서슬이 시퍼런 시절 단종의 제사를 지냈으며 금오산 용장사에서 기거했다. 그곳에서 매화를 심어 정원을 가졌다.

“눈길에 홀로 그대 찾아 지팡이 끌고 갔더니/ 그 참된 뜻을 깨달은 듯하다 다시 혼미해졌다./ 나는 도리어 매화의 부림을 받아/ 별이 비끼고 서편에 달이 지도록 서 있네.”



김시습의 호가 매월당인 것처럼, 그는 매화를 좋아했다. “무심한 매화에 이끌려 자신도 무심한 경지”에 들곤 했다. 매화에 관한 14수를 지은 연유다. 그러나 본재나 화본, 정원에 심은 매화에 대한 흥미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다. “엄동설한과 찬바람에 흔들리며 피워난” 매화를 높이 평가했다.

조선 선비 100인이 꽃에 대해 남긴 글을 토대로 쓴 책 ‘꽃과 운명’에 나오는 내용이다. ‘청년다산’, ‘꽃을 읽다’ 등의 저자인 차벽 씨가 썼다. 그는 선비들이 어떤 꽃을 사랑하고 어떤 운명으로 살았는지를 들여다본다.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가 꽃을 사랑한 옛 사람들의 삶을 절하기 시작”한 것이 책을 쓰게 된 연유다. 그러면서 저자는 선조들은 꽃을 관(觀)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간화(看花)가 아니라 독화(讀花)였다고 정의한다. 저자가 전국을 누비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 선비들의 시에는 매화, 연꽃, 국화, 복숭아꽃, 살구꽃, 배꽃 순서로 많이 등장한다. 시조나 가사, 민요에는 복숭아꽃, 국화, 연꽃, 매화 살구꽃 순이었다. (참고로 현대시에는 장미, 해바라기, 국화, 목련, 코스모스, 진달래 순이다)

평생 강직하고 바른 처신 탓에 투옥을 당하고 좌천됐던 놀재 박상(1474~1530)에 관한 꽃 이야기기도 있다. 북상중이라 기묘사화 참사를 면했던 그는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휼한 것으로 유명하다. 광주 사람인 그가 남긴 시에는 안목과 소신, 인간애가 담겨 있

다. 서거정 이후 성현, 신광한, 황정옥 등과 함께 4가(4家)로 칭송될 만큼 뛰어난 문재를 지녔다.

정조의 놀재 시에 대한 상찬은 이목을 끈다. ‘청아하며 고고하고 담박하여 저절로 한없는 맛이 있고 후인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아가 ‘당대 뛰어난 시인들의 장점을 다 갖춘 최고의 시인’이라 명명한다.

“...향기와 혼은 혼풍으로 돌아들어 깨어나고/ 고운 골격은 옥이슬 머금어 어여쁘다./ 푸른 물 서원에서 밝은 해에 우쭐거리고 / 푸른 숲잔 북해 집에서 차린 술자리 빛난다./ 가장 슬픈 건 해마다 꽃은 같은데/ 삶이 들쭉날쭉하여 지난해와 다른 것이라.” (‘백일홍’ 중에서)

꽃 곁에서 장수를 누리 이도 있다. 그는 김안로가 권세를 잡자 벼슬에서 물러났다. 바로 담양 출신 송순이다. 최초 가단인 면양정가단을 결성하고 자연을 애애했던 그는 평생 매화를 사랑했다. “꽃이 진다고 새들이 슬퍼마라/ 바람에 흩날릴 뿐 꽃의 탓이 아니로다/ 가노라 희짓는 봄을 시새워 무엇하겠는가”(상춘가)

시에서 ‘꽃’은 을사사화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이며 ‘바람’은 사회를 일으킨 운원형 일파다. 송순은 자연과 함께 하며 그렇게 난세를 이겨냈다.

이밖에 ‘조선의 기개 높은 꽃이었던’ 신사임당, ‘국화를 가꾸며 개혁을 꿈꾼’ 김육, ‘매화와 대나무처럼 살다 간’ 성삼문, ‘비바람 속의 연꽃처럼 살았던’ 권근의 꽃과 삶에 얽힌 운명도 만날 수 있다. (착한책 히고히고 2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생 강직하고 바른 처신 탓에 투옥을 당하고 좌천됐던 광주 사람 놀재 박상. 그의 시 ‘백일홍’에는 기묘사화의 아픔이 배어있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 김용학 가옥 앞 백일홍.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완의 자세

김유담 지음

전국 축제 자랑

김흔비·박태하 지음

생애 전환 학교

고영직 외 지음

여탕에서 때를 밀어주며 밤별이를 하는 세신사 엄마, 비록 여탕에서 자랐지만 무용가로 성장한 딸의 이야기. 김유담 작가의 소설 ‘이완의 자세’는 ‘금남의 구역’에서 벌어지는 오늘을 사는 여자들의 내밀한 사연을 다룬다.

소설은 201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핀 캐리’로 등단 후 2020년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신에 김유담의 신작이다. 몸에 대한 고찰부터 여탕을 드나드는 여자들의 고단한 삶과 내밀한 사연이 펼쳐진다. ‘나’는 대학시절 내내 중앙무대에서 주목받지 못한 무용가 지망생이다. ‘엄마’는 남편을 잃고 사기까지 당해 어린 딸과 24시만수불가마사우나의 때밀이 일을 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배우며 언젠가는 성공한 무용가가 되어 여탕을 탈출하겠다는 꿈을 키운다.

매일 여자들의 몸을 닦아주며 사는 엄마와 몸을 써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 딸은 그러나 아귀가 맞지 않아 빠지고버린다. 별시와 하대를 당하면서도 오랜 시간 때밀이를 하며 딸과의 생활을 이어오는 엄마, 그런 엄마가 아프게 다가오면서도 여탕에서 벗어나고 싶은 딸은 잦은 갈등을 빚는다.

나와 함께 사우나에서 자란 사정집 아들 만수 역시 한때는 야구 유망주였다. 그러나 사고로 어깨를 다친 후에는 더 이상 야구를 하지 못한다. “주인공은 단 한명뿐”이고 “누구든 확률적으로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머물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나와 만수는 아프게 깨닫곤 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가슴 속 깊이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며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창비·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별교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이다. 소설의 주 무대라는 배경은 읍이면서도 별교를 전국적인 고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남도에서는 ‘보성’ 별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별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큼 별교 사람들은 고장에 대한 자존감이 강하다.

가을 별교에서는 꼬막 축제가 열린다. ‘꼬막과 함께하는 다양한 게임’이 펼쳐지는데 ‘꼬막 던지기’, ‘바퀴 달린 널배 타기’ 등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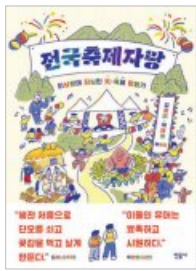
다소 생소하지만 아름다운 축제를 담은 책 ‘전국 축제 자랑’은 김흔비·박태하가 쓴 여행기다. 이들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을 다니며 고장의 유명한 축제를 경험했다.

여행의 시작은 두 저자가 가졌던 사소한 의문이 계기가 됐다. 일테면 이런 것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한국이라는 공간은 왜 이럴까’처럼 순수한 호기심이 모티브가 됐다. 가치관단을 보류한 채 축제의 현장으로 빠져든 저자들에게 K-축제는 진심이 있고 미심쩍지만 아름다운 여행으로 다가온다.

남도 지역 축제로는 영산포흥어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등이 소개된다. 찬란한 봄 유채꽃을 지나 축제장에 가까워지는 길에서 맑은 흥어 냄새는 사뭇 이색적이다. “흥어를 넣은 화전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그런 걸 만들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기괴한 냄새였다.”

이밖에 책에는 ‘이런 나라 보라고’ 밀양아리랑대축제, ‘예해라 풍파가 잘도 논다’ 음성품바대축제, ‘이제 그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야 할’ 양양 연어축제, ‘갈라져야 쓰것네’ 젓가락페스티벌 등도 소개돼 있다. (민음사·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1세기 인간의 생애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 유엔이 지난해 발표한 연령구분에 따르면 청년은 18~65세까지이며, 중년은 66~79세를 이룬다. 또, 노인은 80~99세, 장수노인은 100세 이상이다. 청년기가 50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50~60대를 아우르는 ‘신중년’ 개념도 새롭게 생겨났다.

일자리가 없지만 여전히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고, 젊은이의 발랄함과 화사함을 간직하며 영원한 현역으로 남고 싶은 ‘신중년’ 세대들은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최근 고영직 문학평론가, 김찬호·고재열 여행자플랫폼/트래블러스랩 대표 여행자, 백현주 예술과 텃밭 대표, 구민정 흥익대 공연예술대학원 교수 등이 모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창의적 ‘전환’의 삶을 제안하는 ‘생애 전환 학교’를 펴냈다.

이들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경제적 공포와 고립 공포감에서 벗어나 어떻게 주체적으로 문화적 삶을 창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1부 ‘창의적 전환’의 삶을 위하여, 2부 ‘낯선 감각, 이토록 예술적인 전환’이라니!, 3부 ‘끝나지 않은 전환’의 실험이 남긴 것들’로 구성된 책은 연극, 글쓰기, 사진, 의상, 주거, 여행 등 문화예술 활동 속에서 삶의 ‘전환’을 모색해온 여러 가지 실험적 사례들을 엮었다.

아울러 서울시 ‘50+인생학교’, 수원 ‘뭐라도학교’, 인천 ‘제멋대로학교’, 목포 ‘괜찮아마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등의 사례도 소개한다. (서해문집·1만6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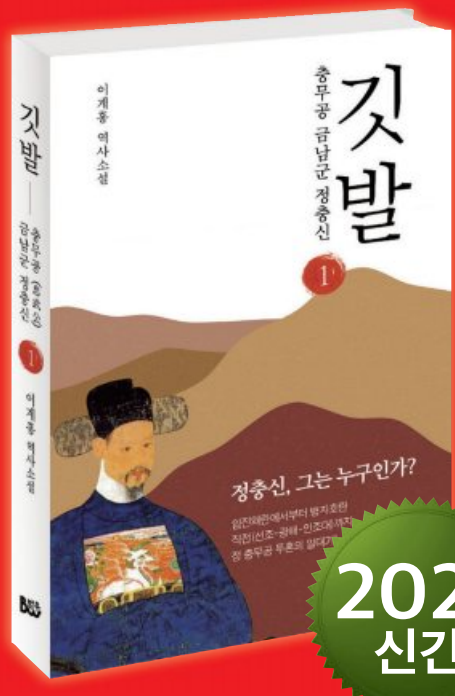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은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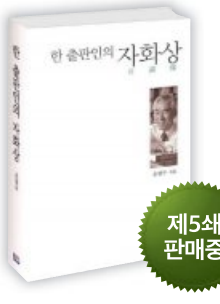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은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펴낸 한중일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랑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